

# 발명 영재 키우는 어머니 대상으로 광주 신광중학교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개최

사회 구조 급변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 참여 증대와 경제 축으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설명회가 지난달 16일 광주 신광중학교에서 열렸다.



▲ 지난달 16일 광주 신광중학교에서 발명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열린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특허청(청장 하동만)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한미영)가 주관하여 열리는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

기 설명회는 현재까지 경기도 성결대학교, 순천대학교, 부산시 동아대학교 등에서 열렸으며 하반기에는 강원도, 대전, 울산, 제주, 창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 동부교육청 산하의 신광중학교 발명 교실에서 발명 영재들을 키우는 어머니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개요 및 사례, 생활 속에서의 발명 활동, 쉽고 재미있는 발명 사례 등의 강의와 함께 어머니들이 직접 발명품을 만들어보는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새천년국제특허사무소 장순부 변리사와 전북교육청 임길영 장학관이 쉽고도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하여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한국특허정보원의 배경완씨가 헬프데스크를 통해 참석한 어머니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와 어머니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는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 값진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익한 행사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석유만 먹는 자동차 시대는 이제 갔다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 즉,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예를 들면, 기존의 자동차 엔진에 전기모터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현재의 일반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무공해 차량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축전지나 연료 전지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실용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자동차 기술 개발 동향이 대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내 자동차업계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출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출원은 지난 '95년 이전 35건에 불과하였으나 '96부터 '99년에 이르기까지 123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는 26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00년 들어 예전 출원건수 평균의 약 300%에 가까운 폭발적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2003년 발효되는 미국 CARB(California Air Resource Board)의 배기가스 규제(총 판매 대수의 10%를 무공해 차량으로 판매해야 함)와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규제(2000년에는 EURO-III 수준의 규제였지만 2005년에는 EURO-IV 수준의 규제를 요구함. 여기서, EURO-III나 EURO-IV는 유럽자동차의 배기가스 기준을 의미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규제 등에 대응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출원건수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 과학기술부, 국가전략연구사업 54개 연구실 선정

### 선정 연구실 연간연구비 3억원 지원, 2년 뒤 최장 5년까지 연장 지원

과학기술부는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산·학·연 과학기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전략 연구개발 사업인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체로 2003년 54개 연구실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과기부는 앞서 지난 1월 국가기술지도(NTRM)의 중요기술과 수행 중인 국가지정연구실의 기술을 상호 분석 검토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기술군(群)을 선정, 공모했다. 이 결과 총 134개 기관이 584개 과제를 신청했으며 과기부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산·학·연

전문가 275명이 참여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한국화학연구원, (주)다음기술,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포항공 대 등 54개 산·학·연 연구소(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연구실은 연구실당 연간 3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받게 되며 선정된 지 2년 뒤 단계 평가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지원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에 속하는 연구실은 강제 탈락된다.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은 지난 9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동안 414개의 연구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특허출원 2,217건, 특허등록 464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광고문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

S.P.I

“귀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주|삼국산업기획

대표전화 (02)2278-3254 서울 중구 예관동 126-1 | 제품카탈로그 | 기업브로슈어 | 패키지 디자인 | 광고디자인 |